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미술]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를 아시나요?
Do you know Banksy?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Banksy)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그러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익명**의 예술가. 불특정한 장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벽화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이 예술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뱅크시(Banksy)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예술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끔씩 뱅크시를 **자칭**하고 나서는 가짜 뱅크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때로는 경찰이 거리에 불법페인팅을 하는 뱅크시를 체포하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테러를 할지 모르는 테러리스트처럼, 뱅크시의 작품은 언제 어디서 완성되어질지 모릅니다. 뱅크시를 '아트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가 남긴 벽화를 통해 뱅크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그의 서명이나 다름없는 풍자와 조롱이 담긴 **스텐실 기법**의 벽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 경찰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담긴 작품

뱅크시(Banksy)와 게릴라 아트(Guerilla Art)

불특정한 장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벽화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작업 방식 때문에 뱅크시의 작품은 게릴라 아트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게릴라 아트는 거리예술운동(street art movements)의 하나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젊고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공의 장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 설치하는 형태로 존재하였고,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제거되어 일시적으로 전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게릴라 아트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즉흥적이고 유희적이며, 정확한 계획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릴라 아트 중 대표적인 사례가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과 게릴라 니팅(Guerilla knitting)입니다. 게릴라 가드닝은 1973년 예술가 리즈 크리스티가 동료 및 지역주민들과 지저분한 공터의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을 만들고 그린 게릴라(Green Guerillas)라고 칭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30여개국으로 확산되었고,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와 의지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실천적 사회참여행위가 되었습니다. 게릴라 니팅은 쓰다 남은 실과 편직물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사물들인 가로등, 소화전, 우체통, 자전거, 자동차 등을 밝고 화려한 색의 털실로 짜여진 편직물로 덮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뜨개질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서와 예술의 자유분방함을 대중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다양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트 테러리스트의 폭력에의 저항

영국의 브리스틀 지역에서 시작된 그의 벽화는 현재 장소를 **불문**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쟁, **자본주의, 권위주의**, 불평등, 비인간성 등에 대해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는 뱅크시의 작품에서 우리는 웃으면서 슬퍼하고, 웃으면서 분노하며 공감을 느낍니다.

그가 **출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주제 중 하나는 **전쟁과 폭력에의 저항**입니다. 손에 **화염병**이나 무기대신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꽃다발을 들고 있는 시위자, 평화의 마음을 진단하는 의사, 방탄조끼로 무장한 비둘기,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는 저격수, 저격수가 되어버린 어린 아이 등을 묘사한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아트 테러리스트라고도 불리는 뱅크시는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 합니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작품>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팔레스타인 장벽에 대한 그의 외침

이스라엘은 UN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국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길이는 총 680km에 이르고 높이는 9m에 달하는 장벽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이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오랜 분쟁에 대한 두 나라의 소통과 화해의 길도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뱅크시는 2005년 8월, 이곳으로 이동해 9점의 작품을 장벽에 남겼습니다.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시종일관 위협적으로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서진 장벽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담았고, 풍선을 타고 장벽 위를 두둥실 떠오르는 소녀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이런 시도는 세계에 다시 한 번 분쟁 문제를 환기시켰고, 이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장벽에 그려진 작품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최근에는 조금 특별한 방식에서의 접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벽 바로 앞에 '벽에 가로막힌 호텔(The Walled Off Hotel)'을 세운 것입니다. 호텔 내부에 들어오는 햇빛의 시간이 하루에 고작 25분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전망이 나쁜 호텔'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장벽을 직접 마주하며 분쟁문제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각 객실 안에는 그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래피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아트 갤러리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꿈꾸는 그의 작품은 거리의 벽에서 호텔, 영화, 프로젝트성 전시 등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벽에 가로막힌 호텔(The Walled Off Hotel) 내부에서 바라본 팔레스타인 장벽

자본주의와 정부에 대한 따끔한 일침

그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의 이유는 낙서화가 바로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뱅크시만의 작업스타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빠르게 도망쳐야 했던 그는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작업을 끝낼 수 있었고 이는 곧 그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익명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뱅크시는 자본주의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맥도널드, 테스코 등의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자본주의 행태를 꼬집는 작품을 선보이는가하면, 미국정부의 **도청**문제에 대한 비판, UN **탈퇴**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맥도널드의 자본주의 행태를 고집는 작품



거대 글로벌 기업인 테스코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심을 풍자한 작품



미국 정부의 도청문제를 다룬 작품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문제를 다룬 작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지한 물음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뱅크시의 **위트** 넘치는 작품들에는 이 세상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안전한가요? 인간다운 세상인가요? 누구든지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뱅크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우리들이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표현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탐구 과제 :** 내가 만약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면, 어떤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제작하고 싶은지 발표해보자.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그래피티 작품을 제작해보자. 예술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토론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관련 영역 :** 중학교 1~3학년군 - 표현

용어 설명

- 그래피티 아티스트[graffiti artist] :** 거리의 벽 등 세상의 다양한 공간을 캔버스 삼아 스프레이 등을 활용해 벽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 익명 :** 이름을 숨김.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 자처하다 :**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하다.
- 스텐실[stencil] 기법 :** 글자나 무늬, 그림 따위의 모양을 오려 낸 후,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 내는 판화 기법
- 불문 :** 문지 아니함
- 자본주의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어 사람들은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생산을 하며,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반면, 빈부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권위주의 :** 어떤 일에 대하여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
- 화염병 :** 휘발유나 시너 따위의 화염제를 넣어 만든 유리병. 심지에 불을 붙여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확산된다.
- 은유 :**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
- 상징 :**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
- 환기 :** 주이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려일으킴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영감 :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프로젝트 : 연구나 사업. 또는 그 계획. '연구 과제', '일감'으로 순화

범법행위 : 법을 어기는 행동

시그니처[signature] : 작품에 써 넣거나 새겨지는 작가의 이름이나 서명. 여기서는 작가의 서명이나 다름없는 작가만의 특유의 기법을 의미

도청 :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 '엿들음'으로 순화.

탈퇴 :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남.

브렉시트[Brexit] :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됨

워드 : 말이나 글을 즐겁고 재치 있고 능란하게 구사하는 능력